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71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5.12.18~2025.12.24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2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성과(우수/평가), 에너지(전환/핵심), 투자(투자/기반), 심사(희생자), 청소년(가치)
경제·관광	성장, 소상공인(상권/활력/지원사업), 수출, 여행, 디지털
지역·사회	쿠팡(개인정보), 연구(의료/데이터), 꽃자왈/바다, 지역사회(생활/편의), 도로/구조

※ 분석 기간 : 25.12.18.~25.12.24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성과(우수/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 제주도정 우수 핵심과제 선정 및 시상 - 제주도교육청 학교회계 분석 우수기관 선정 -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수상자 확정
	에너지(전환/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에너지 주권 실현 - 3차원 고정밀 재생에너지 전자지도 구축 - 동복리 LNG 발전소 본회의 상정 전격 보류
	투자(투자/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농축산식품 분야 2412억 원 집중 투자 -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1774억 원 대규모 투자 - 제주 원도심 탐동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심사(희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심사 절차 가속화 -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우수 기관 최종 선정 - 제주향토음식 장인 및 신규 향토음식점 지정
	청소년(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신청 폭주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성공적 안착 -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과제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제주 경제성장률 0.4% 급락 위기 - 제주지식산업센터 개소 및 신산업 거점 -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1000억 국책과제 유치
	소상공인(상권/활력/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대학생 튜터 - 왕왕작작 골목상권 세일 페스타 시즌 2 -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의 실질적 성과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산 축산물 싱가포르 수출 본격 가속화 - 화장품 기업 유씨엘 3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 - 제주 상품 일본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 제주 방문율의 뚜렷한 상승세 - 제주 드림타워 개관 5주년 방문객 기록 경신 - 티웨이항공 제주-후쿠오카 직항 노선 재개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은행 ERP banking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중소기업 육성자금 비대면 신청 시스템 고도화 - 제주시 디지털융합 확산 유공 기관 표창 수상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쿠팡(개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주 도민 집단소송 - 제주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이용 활성화 - 유통산업 제도 개선 및 기업 책임 촉구
	연구(의료/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능 프로젝트 1차 연구 성과 발표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참여 -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 도민 여론
	꽃자왈/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꽃자왈 보호 모금 목표액 10억 달성 - 2025년 제주 바다 10대 뉴스 선정 발표 - 제주 하르방 꽃자왈 구술 채록집 발간
	지역사회(생활/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공사 지역사회공헌 최우수 등급 획득 - 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식 개최 - 소규모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
	도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 기술 접목 치안 드론 본격 도입 - 고령자 이용 버스정류장 주변 보행 신호 개선 - 제주시 편의점 장애인 접근성 실태 조사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5년 12월 18일~12월 24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776건임
 - 정치·행정 분야 313건, 경제·관광 177건, 지역·사회 286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성과(/우수/평가), 에너지(전환/핵심), 투자(투자/기반), 심사(희생자), 청소년(가치)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p>정치·행정</p>	<p>성과/(우수/평가)</p>	<p>- 2025 제주시정 우수 핵심과제 선정 및 시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는 27개 실·국에서 추진해 온 47개 핵심과제들을 대상으로 하여 면밀한 서면 및 발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도정 비전 실현에 기여한 10개의 우수 정책을 선정하여 이들의 가시적 성과와 노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함. · 이번 심사에서 금상을 차지한 제주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성과와 제주시가치 통합돌봄 고도화 정책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대다수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행정의 효능감을 입증한 대표
--------------	-------------------	---

	성과/우수/평가)	<p>적 사례로 평가받음.</p> <p>- 제주도교육청 학교회계 분석 우수기관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공·사립 학교회계 분석 평가에서 운영 사례의 탁월성을 인정받아 전국 시·지역 및 도·지역별 1곳씩만 선정하는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으며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상함. ·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편람 제작과 집행 결과에 대한 정밀 분석 및 공유를 통해 집행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예산 불용률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주요 성과 요인으로 분석됨. <p>-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수상자 확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향토 문화의 보전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남긴 예술, 교육, 언론, 체육 등 7개 부문의 인사들을 엄격한 분과위원회 심사와 전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도 문화상 수상자로 최종 선정하고 시상식을 통해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림. · 196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64회째를 맞이한 이번 문화상 시상식은 각 분야에서 제주다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해 온 주역들을 발굴함으로써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의 고유한 정체성을 계승하며 확산하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함.
정치·행정	에너지(전환/핵심)	<p>-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에너지 주권 실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실시간으로 거래하는 가상발전소 및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혁신적인 시스템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증 단계에 진입함. ·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약 2,913억 원 규모의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2,000여 명에 달하는 취업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도민들이 단순 소비자를 넘어 에너지 생산과 거래의 주체로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주권 시대를 선도하고자 함. <p>- 3차원 고정밀 재생에너지 전자지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인공지능 기술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정보를 정밀하게 결합하여 도내 전역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풍력발전 시설의 현황을 입체적인 3차원 데이터로 구축함으로써 2035 탄소중립 전략 추진을 위한 과학적이고 정교한 근거 기반을 마련함. · GeoAI 기반의 변화 탐지 기술을 도입해 지형의 변화상을 1년 단위로 신속히 포착하고 지도를 갱신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 버티포트 입지 선정 시뮬레이션 및 장애물 제한 표면 설정 등 행정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됨. <p>- 동북리 LNG 발전소 본회의 상정 전격 보류</p>

정치·행정	에너지(전환/핵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에 추진 중인 150MW급 LNG 복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전력수급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하는 결정을 내림. ·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화석연료 발전 시설의 추가 증설이 제주의 2035 탄소중립 비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강력하게 반발해 왔으며, 이번 의장의 상정 보류 결정은 정부의 명확한 정책 입장을 재확인하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신중한 행보로 풀이됨.
	투자(투자/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농축산식품 분야 2412억 원 집중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내년도 농업·축산·식품 분야에 총 2,412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과학 영농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망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 관리 체계를 공고히 구축할 방침임. · 특히 농산물 물류 혁신을 위해 내륙거점 통합물류센터를 강원권과 충청권까지 확대 확충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및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 등 유통 인프라 개선에 예산을 집중 배정함으로써 제주 농산물의 전국적인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1774억 원 대규모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건설·건축·주택·도로 분야에 총 1,77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전국 최초로 중소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 240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 저금리 대출 지원사업을 실시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임. ·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687호의 착공과 원도심 및 농어촌 지역의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도로 교통 안전 인프라 확충과 보행 환경 개선 등 정주 여건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질적인 재정 투입을 가속화함. - 제주 원도심 탐동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의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에서 제주시 탐동지구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노후화된 해변공연장 일대를 일자리와 문화, 여가, 관광 기능이 집약된 연면적 5만㎡ 규모의 복합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여 원도심의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전기를 마련함. · 내년 국가시범지구 본 공모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최대 25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제주개발공사와 제주도가 공동 시행하여 제주신항과 연계된 관광 융복합 체험 시설과 대규모 실내공연장, 공영 주차장 등을 구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경제의 재도약과 문화적 활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임.
	심사(희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심사 절차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최근 제241차 회의를 통해 219명에 대한 희생자 보상금 지급 및 변경 심사 안건을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현재까지 전체 신청 인원의 73.9%에 달하는 9,192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유족들의 명예 회

정치·행정	심사(희생자)	<p>복과 상처 치유를 위해 최선을 다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지난 3년간 총 35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심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왔으며, 현재까지 7만 9,302명의 청구권자에게 총 5,755억 원 규모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연내 보상금 지급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실 조사 및 심사 인력을 상시 가동하는 체계를 유지함. <p>-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우수 기관 최종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도내 31개 공영관광지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암행평가와 서면 심사 및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비스 품질과 콘텐츠 기획 능력이 뛰어난 서귀포감균평화박물관을 최우수로 선정하고 제주돌문화공원 등 7개소를 우수 관광지로 확정하여 시상함. · 조사 결과 전반적인 관람 환경 정비와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관광지별로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 확충과 전문적인 해설 기능 보완이 향후 제주의 공영관광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도출되어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함. <p>- 제주향토음식 장인 및 신규 향토음식점 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60여 년간 전통 보양주인 ‘오합주’의 제조 비법을 온전히 계승하며 직접 농사지은 재료를 활용해 탁월한 숙련도를 보여준 김태자 씨를 2025년도 제주향토음식 장인으로 최종 지정하고, 제주흑우 전문점인 ‘제주한정식’을 신규 향토음식점으로 선정해 지역의 미식 자산을 공식화함. · 지정된 장인과 음식점에는 공식 지정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제주도와 관광공사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전략적 홍보 지원은 물론, 다국어 메뉴판 설치 및 모바일 결제 시스템 고도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선 지원을 병행하여 제주의 정체성이 담긴 미식 관광 자원을 육성함.
	청소년(가치)	<p>- 1학생 1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신청 폭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선택한 스포츠를 정규 수업으로 배우는 ‘1학생 1스포츠’ 프로그램의 내년도 공모 결과,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가 올해 대비 145%나 급증한 27개교로 집계되어 학교 현장의 뜨거운 교육 수요와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를 다시 한번 입증함. ·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승마, 골프, 서핑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종목에 대한 체계적인 강습을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학생 1인당 최소 20회 이상의 참여 의무를 도입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체육 시설과 인적 자원을 연계한 상생 모델을 고도화함. <p>-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성공적 안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어린이·청소년 무료 교통복지카드 사업을 통해 성장기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일평균 18% 이상 증가시키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0회 대한민국 청소년 희망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함. · 이번 정책은 청소년 투표단이 직접 선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정책 수혜자의 체감도가 매우 높음을 증명하였으며, 제주도는 향후 무료 이용에 따른 하차 정보 미확인 문제 등 시스템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버스에 하차 전용 단말기

정치·행정	청소년(가치)	<p>를 통합 설치하는 등 이용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수행함.</p> <p>-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제도적 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체류 신분 문제로 인해 한국과 부모의 국가 어디에도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채 ‘유령’처럼 살아가는 도내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위해, 제주도의회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지역아동센터 등 필수적인 교육·복지 시설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함. · 미등록 이주아동은 학업과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번 조례 추진은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소외된 아이들의 삶을 공론화하고 지역 사회의 포용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실태 파악과 사회적 합의가 핵심 과제로 남음.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성장, 소상공인(상권/활력/지원사업), 수출, 여행, 디지털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성장	<p>- 2024년 제주 경제성장률 0.4% 급락 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해 제주 지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인 2.0%를 크게 하회하는 0.4%를 기록하며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는 지역 경제의 두 축인 건설업의 기록적인 하락(-19.5%)과 농림어업의 마이너스 성장 전환
-------	----	--

경제·관광	성장	<p>(-3.8%)이 지표를 끌어내린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건설 및 설비 투자를 의미하는 총고정자본형성 증감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14.4%를 기록하는 등 민간 투자의 위축이 뚜렷한 상황에서, 서비스업 비중이 79.9%까지 확대되는 산업 구조의 편중화가 심화되고 있어 지식 기반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과 새로운 동력 확보가 시급한 시점임. <p>- 제주지식산업센터 개소 및 신산업 거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해 총 303억 원이 투입된 제주지식산업센터가 제주시 아라동에 본격 개소하면서 바이오, AI,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을 이끌 22개 첨단 기술 기업이 입주를 확정하였으며, 이는 과거 1차 산업 가공 중심이던 제주 제조업의 무게중심을 지식 기반 산업으로 대전환시키는 혁신 거점임. · 센터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ETRI의 인공지능 융합연구실과 수도권 기술 강소기업 10개사가 동지를 틀어 지역 기술 고도화를 견인하며, 제주도는 입주 기업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해 재정적 지원과 함께 대학·연구기관과의 강력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업 간 기술 융합을 촉진함. <p>-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1000억 국책과제 유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테크노파크가 그린수소 생산 플랫폼 구축, 바이오 기업 AI 대전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조성 등 총 5개의 대규모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약 1,000억 원에 육박하는 핵심 사업비를 확보함으로써 제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함. · 이번 사업을 통해 AI 솔루션 도입 기업 50개사 육성과 500여 명의 전문 인재 양성이 기대되며, 특히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약 50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농가 소득 안정화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전망되는 만큼 각 부문별 핵심 기술 개발과 데이터 연계를 통해 제주형 신산업 모델이 국가 선도 사례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함.
	소상공인(상권/활력/지원사업)	<p>-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및 대학생 튜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카카오 및 3개 대학이 협력하여 운영한 ‘대학생 튜터 사업’을 통해 IT 역량을 갖춘 30명의 학생들이 71개 소상공인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카카오톡 채널 개설과 공공배달앱 ‘먹깨비’ 입점 등 실무 중심의 온라인 마케팅을 밀착 지원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디지털 자생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함. · 사업 결과 총 42개 매장이 신규 채널을 구축하고 5,900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등 가시적인 매출 증대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참여한 대학생들에게는 현장 중심의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부여하여 지역 경제의 새로운 상생 모델을 구축함. <p>- 왕왕작작 골목상권 세일 페스타 시즌 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연시를 맞아 함덕, 전농로, 이도패션거리 등 제주도 내 7개 신규 지정 골목형 상점가를 중심으로 ‘2025 왕왕작작 세일 페스타 시즌 2’가 개최되어, 구매 고객에 대한 사은품 증정과 상점가별 자율 기획 행사를 통해 침체된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연말 방문 수요를 집중적으로 창출함. · 제주시 공직자들의 현장 조사 및 상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주차난 해결과 디지털 홍보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상권 활성화 계획에 적극

	<p>소상공 인(상권/ 활력/지 원사업)</p>	<p>반영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전통적인 시장의 틀을 넘어선 제주의 다양한 골목 상권들이 지닌 고유한 매력을 널리 알리고 소상공인의 체감 경기를 실질적으로 회복함.</p> <p>-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의 실질적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기업들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를 통해 지난 1년 5개월간 32개 기업으로부터 접수된 80건의 애로사항 중 50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62.5%의 높은 해결률을 기록하였고, 특히 본사 이전 과정의 누수 문제 해결 등 현장 중심의 기민한 행정 실행력을 입증함. · 이번 성과 공유회에서는 공장 내 방문객 체험 시설 허용과 같은 구조적인 규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도정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 청취하여 반복되는 애로사항을 정책 과제로 환류하고 규제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신성장 산업군 기업들이 제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을 강화함.
<p>경제·관광</p>	<p>수출</p>	<p>- 제주산 축산물 싱가포르 수출 본격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싱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주산 한우와 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이 최종 승인된 이후 보름 만에 약 19톤(7억 4,000만 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현지 판매 가격이 국내 대비 1.2배 높게 형성되는 등 동남아시아의 고부가가치 프리미엄 육류 시장에서 제주 축산물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함. · 내년도 수출 규모는 올해의 5배 수준인 217톤(약 58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식육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수출 작업장 추가 승인을 위한 맞춤형 위생 지도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싱가포르 현지 유통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제주 축산물을 아세안 지역의 핵심 전략 수출 품목으로 육성함. <p>- 화장품 기업 유씨엘 300만 불 수출의 탑 수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를 대표하는 화장품 전문 기업 유씨엘이 고기능성 화장품 제조 기술과 안정적인 ODM 수출 구조를 기반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1%의 고성장을 기록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3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뷰티 시장에서 제주 화장품의 기술적 경쟁력과 신뢰도를 대외적으로 높임. · 매출의 18%를 R&D에 지속 투자하고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농산 부산물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원료 연구 등 친환경 트렌드에 대응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유럽, 미국,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지역 제조 산업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 <p>- 제주 상품 일본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의 청정 자연을 모티브로 제작된 프리미엄 치약 등 향장품 기업의 상품들이 일본 오프라인 유통의 핵심 채널인 ‘로프트’와 ‘한즈’의 전국 180개 매장에 입점하여 판매를 시작하며 브랜드의 글로벌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렸으며, 제주동경통상대표부의 바이어 매칭 및 매대 디스플레이 마케팅 지원이 시장 안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함.

경제·관광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 높이를 디자인에 접목한 참신한 콘셉트와 기능성을 인정받아 향후 일본 내 25개 치과병원과의 직접 공급 계약까지 확정 지으면서 지속적인 수출 물량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앞으로도 상해와 싱가포르 등 해외 거점을 활용해 지역 기업 제품의 글로벌 유통 채널 진입을 위한 밀착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 제주 방문율의 뚜렷한 상승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콘텐츠 열풍과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흥행 영향으로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방문율이 올해 3분기 10.5%를 기록하며 분기별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이는 항공편 증편 등 교통 접근성 개선과 맞물려 제주가 서울에 이은 비수도권 대표 관광지로서의 존재감을 확고히 하며 외국인 관광 수요가 다변화되는 흐름을 주도함. · 특히 드라마 배경지로 주목받은 지역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며 콘텐츠 기반 관광 수요가 실제 방문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제주도는 6개 국어를 지원하는 공식 여행 플랫폼 ‘비짓제주’ 고도화와 AI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여행 추천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 주력함. - 제주 드림타워 개관 5주년 방문객 기록 경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5주년을 맞이한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가 누적 방문객 1,150만 명을 돌파하고 3개월 연속 600억 원대 매출을 달성하며 제주 관광의 성수기와 비수기 경계를 허무는 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특히 카지노 매출이 급증하며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 자리를 굳히는 등 고부가가치 관광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드림타워는 개관 5주년을 기념하여 제주도민 2,100명을 초청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응모 시작 3일 만에 3만 7,000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가운데 향후 장애인 가족 초청 식사 제공 등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랜드마크로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속함. - 티웨이항공 제주-후쿠오카 직항 노선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이후 중단되었던 제주-후쿠오카 직항 노선이 티웨이항공의 취항으로 6년 만에 전격 재개되어 주 4회 운항을 시작하였으며, 첫 편 예약률이 99%에 달할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도민들의 여행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키는 동시에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대한 계기를 마련함. · 후쿠오카 노선은 1시간 10분이라는 짧은 비행시간과 풍부한 미식·관광 자원 덕분에 주말 여행객들에게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며, 티웨이항공은 오사카, 타이베이, 싱가포르 등에 이어 5번째 제주 출발 국제 노선을 확보함으로써 제주를 거점으로 한 아시아 노선 확대를 가속화하고 지역 항공 수요 분산을 통한 공항 이용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음.
	디지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은행 ERP बैं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은행과 더존비즈온이 공동 신청한 ‘ERP बैं킹 수신 중개 서비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공식 지정됨에 따라 기업 경영 데이터와 금융 시

	디지털	<p>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결하여 별도의 은행 방문 없이 기업용 소프트웨어 화면 내에서 즉시 계좌 개설과 금융 상품 가입이 가능한 차세대 디지털 기업 금융의 기틀을 마련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지정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실제 자금 흐름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혜택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제주은행은 ERP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교한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7년까지 전국적인 고객 기반을 갖춘 중소기업 특화 전문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임. <p>- 중소기업 육성자금 비대면 신청 시스템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절차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모바일 신청 기능과 금융·보증기관 추천서 온라인 전송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기업인들이 진흥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디지털 행정 지원 체계를 완성하여 편의성을 대폭 높임. · 비대면 서비스 도입을 통해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을 통해 총 16만 건 이상의 서류 제출을 감축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진흥원은 앞으로도 실시간 자금 이용 현황 조회 서비스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계획임. <p>- 제주시 디지털융합 확산 유공 기관 표창 수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는 지난 5년간 ICT 기반 주민 참여 커뮤니티 케어, 전기차 충전 플랫폼, 스마트 재활용 도움센터 구축 등 지역 특색에 맞는 디지털 생태계 구현에 힘써 온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디지털융합 확산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주민 생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성과를 국가적으로 인정받음. · 특히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주 주차 안심번호'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전자문서 기반의 업무 처리 확산을 주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제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행정 전 분야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보다 폭넓게 융합함으로써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방침임.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쿠팡(개인 정보), 연구(의료/데이터), 꽃자왈/바다, 지역사회(생활/편의), 도로/구조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쿠팡(개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제주 도민 집단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70만 명의 쿠팡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하여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온라인 유통 의존도가 높은 제주도민들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법률사무소와 함께 무료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1000명의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함. · 유출된 정보에는 배송 주소와 연락처뿐만 아니라 공동출입문 비밀번호까지 포함되어 보이스피싱 및 마약 범죄 등 2차 강력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기업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통한 실질적인 사회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요구함. - 제주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이용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주차 안심번호 가입자가 1만 2000명을 돌파했으며 차량에 전화번호 대신 QR코드와 ARS를 비치해 연락함으로써 번호 노출에 따른 범죄 위험을 원천 차단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 보안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음., ·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84.5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제주시의 유튜브 콘텐츠 제작 및 지역 축제 현장 발급 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통
-------	-----------	---

지역·사회	쿠팡(개인 정보)	<p>해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62.7%나 급증함에 따라 앞으로도 기능 개선과 활용 범위 확대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을 강화할 계획임.,</p> <p>- 유통산업 제도 개선 및 기업 책임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이마트노조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성명을 발표하고 매출 확대 시에는 국내 기업 수준의 혜택을 누리면서 책임 국면에서는 외국 기업임을 내세워 회피하려는 기업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며 유통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공정한 관리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함. · 장기간 이어진 오프라인 대형마트 규제가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냉정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및 국내외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기업 및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전환 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연구(의료/데이터)	<p>- 제주 지놈 프로젝트 1차 연구 성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병원과 인바이츠생태계가 도민 5309명의 유전적 특성 규명을 완료하여 제주 토착민의 고유성을 반영한 제주형 표준 게놈 지도를 구축함으로써 정밀의료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암이나 치매 등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측하고 최적화된 맞춤 치료를 가능케 함., · 자체 개발한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칩을 통해 기존 상용 칩의 인종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제주 해녀 집단 등 고유한 유전적 단서와 환경 적응력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크며 향후 수집된 바이오 데이터를 AI 질병 예측 시스템과 연계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최첨단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p>-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추진하는 100만 명 규모의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제주의 거점 병원들이 핵심 권역으로 참여하여 도민들의 유전체 정보와 개별 라이프로그를 수집함으로써 미래의 의료 기술이 지역적 특성에 치우치지 않고 제주 도민에게도 정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형평성을 확보하는 과정임., ·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고유의 식습관 및 환경 정보를 반영한 제주의 데이터는 한국인 표준 건강 지도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수집된 데이터 댐은 연구자들에게 개방되어 난치병과 희귀 질환의 원인을 밝혀내는 결정적 단서이자 질병 예방의 기준점이 됨., <p>-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필요성 도민 여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학교병원이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 도민 응답자의 95.1%가 제주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매우 절실하다고 응답하며 중증 응급환자 치료 역량 강화와 지역 의료 서비스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 및 도외 원정 진료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 해소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와 기대를 보임. · 대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승격 추진에 대해서도 90.5%가 타당하다는

지역·사회	연구(의료/데이터)	<p>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나 진료비 상승이나 일반 환자의 진료 예약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우려도 함께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로 지정을 추진함.</p>
	곶자왈/바다	<p>– 제주 곶자왈 보호 모금 목표액 10억 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으로 추진한 곶자왈 보호 모금사업이 전국의 기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힘입어 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했으며 이를 통해 개발 위기에 놓인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사유 곶자왈 약 5ha를 매입하여 영구 보전함으로써 제주의 핵심 생태 자산을 지킬 기반을 강화함., · 매입된 곶자왈 부지는 개발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되어 관리되며 제주 지하수의 원천인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확대할 예정이며 전국 각지에서 보내준 정성이 값진 성과로 이어짐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사유지 매입과 체계적인 보전 정책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함. <p>– 2025년 제주 바다 10대 뉴스 선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은 기후위기 최전선인 제주의 바다 미래를 조명하는 10대 뉴스를 발표하며 수온 상승에 따른 푸른우산관해파리 대발생과 해상 매립을 동반한 제주 신히 개발 추진 및 집중호우와 고파랑으로 인한 성산일출봉 등 해안 절벽 붕괴 현상을 기후 위기의 심각한 신호로 지목함. · 낚싯줄에 걸려 사망한 남방큰돌고래 종달이 사건과 차귀도에 방치된 대규모 해양쓰레기 문제 등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 공백과 쓰레기 관리의 구조적 한계를 비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생물 공존 확보와 해양보호구역의 실질적인 관리 예산 확충 과제를 제시함. <p>– 제주 하르방 곶자왈 구술 채록집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은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곶자왈을 품고 살아온 마을의 어르신 13명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구술책을 펴냈으며 곶자왈에서 나무를 베어 솥을 굽거나 장작을 팔아 생계를 잇고 4.3 당시 목숨을 부지했던 역사적 증언들을 통해 곶자왈과 도민 삶의 깊은 연결고리를 조명함., · 80대 이상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채록된 이번 기록물은 제주와 곶자왈의 옛 모습을 그려내는 소중한 사료로 활용될 것이며 곶자왈이 단순한 자연 공간을 넘어 제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온 터전임을 알리고 환경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도서를 무료로 배포하며 가치를 공유함.
	지역사회(생활/편의)	<p>– 제주관광공사 지역사회공헌 최우수 등급 획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관광공사가 도내 공기업 최초로 6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됨과 동시에 진단 수준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하며 환경 경영과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 등 모든 평가 분야에서 최고 수준 평

지역·사회	지역사회(생활/편의)	<p>가를 받아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공식 인정받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는 임직원 자원봉사를 통한 연간 6톤 이상의 해양 쓰레기 수거와 사회적 약자 여행 지원 및 지역 스타트업 매출 증대 기여 등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광산업 육성과 주민 복지 증진을 연계한 상생 경영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 <p>- 제주아라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식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과 돌봄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제주 첫 고령자복지주택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주변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보장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임. · 지하 1층부터 지상 6층 규모로 층마다 거실과 주방을 공유하는 세어형 구조를 도입하고 경로식당과 건강증진실 등 노인복지시설을 갖췄으며 욕실 미닫이문과 동작 감지 안심 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여 어르신들이 이웃과 함께 소통하며 건강하고 존중받는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p>- 소규모 우체국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우체국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금융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직원들의 피로도를 완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5개 소규모 우체국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3개월간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실시하며 이를 통해 대기 시간 단축 등 장기적인 운영 효율성과 고객 이용 편의 개선을 도모함. · 이번 제도는 점심 교대 시간대 근무 인원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피탈 및 도난 등 금융 사고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과 문제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완하여 향후 본 운영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지속 홍보할 방침임.
	도로/구조	<p>- 인공지능 기술 접목 치안 드론 본격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자치경찰단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치안 드론을 자치경찰 업무에 도입하여 실종자 조기 발견과 절도범 추적 및 인파 혼잡 사고 자동 통보 등 기존 인력 중심 수색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안전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연회를 통해 실전 대응 능력을 성공적으로 검증받음. · 드론이 산간이나 해안 등 광범위한 지역의 수색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실에 정보를 공유하며 내년부터 AI 치안안전순찰대를 구성해 범죄 예방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이며 이는 첨단 기술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하는 과학 치안의 혁신적인 출발점이 될 것임., <p>- 고령자 이용 버스정류장 주변 보행 신호 개선</p>

지역·사회	도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고령자들의 도로 횡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 비중이 높은 제주시 동문시장과 제주시청 및 서귀포 중앙로터리 등 주요 거점 4곳의 교차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신호 대기시간을 평균 50.5초에서 47.9초로 단축하여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돕고 교통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함. · 이번 개선 조치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 밀착형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실제 이용자들의 대기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향후 공단은 도내 다른 상습 결빙 구간이나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도 정밀 점검과 시설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p>- 제주시 편의점 장애인 접근성 실태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관내 편의점 826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매장은 27%에 불과했으며 특히 내부 복도 보행로가 기준치 이상 확보된 곳은 9%에 그쳐 매대 중심의 비좁은 구조가 이동 약자의 소비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등 소규모 시설의 차별 문제가 확인됨. ·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가맹본사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 마련과 장애인 응대 인식 개선 교육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며 누구나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필수 생활 공간인 편의점이 사회적 배제 없이 평등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관리를 강조함.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